전남도, SK그룹과 글로벌 AI 데이터센터 구축 본격 시동

오픈AI 전용 거점 추진…세부 이행 방안·인프라 협력 논의
GPU 1만개·20MW급 시작…아시아태평양 AI 허브 목표

전남도가 SK그룹과 손잡고 오픈AI 전용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구축을 위한 실행 단계에 돌입했다.

지난 10월 SK그룹과 오픈AI의 업무협약(MOU) 발표 이후 사업 추진을 위한 행정적, 기술적 세부 이행 방안이 구체화되는 모양새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22일 전남도 서울중앙협력본부에서 정석근 SK텔레콤 AI CIC(사내 독립회사) 대표를 만나 글로벌 AI 데이터센터 구축을 포함한 AI 인프라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정 대표는 SK그룹 내 분산된 AI 조직을 일원화해 전략 수립과 실행을 총괄하는 인물로, 이번 만남은 지난 11월 초 김 지사가 최태원 SK그룹 회장을 만난 이후 이뤄진 실무 차원의 후속 면담이다.

이날 면담에서 전남도와 SK그룹은 글로벌 AI 데이터센터 구축을 중심으로 한 인프라 조성 방안과 인허가 등 행정 지원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나눴다.

특히 전남을 '아시아태평양 AI 허브'로 육성하기 위해 정례적인 실무협의를 운영하고 협상을 조속히 마무리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번 프로젝트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샘 알트먼 오픈AI 대표가 체결한 '서남권(전남) AI 데이터센터 협력 MOU'에 뿌리를 두고 있다.

양 사는 구체적인 입지 발표는 미루고 있지만, 사실상 해남과 영암 일대의 기업도시 '솔라시도'가 유력하다.

사업 규모는 우선 GPU(그래픽처리장치) 1만개, 전력 용량 20Mw(메가와트)급으로 시작될 예정으로 전 세계 AI 산업을 선도하는 오픈AI의 전용 거점이라는 점에서 국내 AI 산업의 변곡점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전남도는 SK텔레콤 AI CIC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AI 데이터센터 구축을 위한 후속 논의를 이어가는 한편, 행정·전력·부지·인허가 등 현장에서 필요한 사항을 속도감 있게 지원해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적극 뒷받침할 방침이다.

전남도는 조만간 서울권 지원센터를 신설하고 유관기관 TF(태스크포스)를 가동해 조기 착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김영록 지사는 "글로벌 AI 데이터센터는 단순 개별 기업이 아니라 국가 차원의 대형 프로젝트"라며 "전남도·중앙정부·SK그룹 3자 협의체를 구성해 명실상부한 글로벌 AI 핵심거점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상권 살리기 동참 해야죠"

22일 광주시 시민안전실 직원 18명이 서구 금호동 호남식육식당에서 점심을 먹고 있다. 광주시는 이날 도시철도 2호선 공사 장기화로 침체된 상권을 살리기 위해 구내식당의 문을 닫고 본청 전부서 직원이 공사현장 주변 식당에서 식사를 했다. /나명주 기자 mjna@kwangju.co.kr

광주시의회, 7년 연속 우수조례 수상…입법역량 입증

AI 실증도시 특위 출범 등 성과

광주시의회는 22일 '2025년 의정활동 결산 기자간담회'를 열고 한 해 동안의 의정 성과를 공개했다.

의회는 사상 첫 여성 의장 체제 하 후반기 2년 차를 맞아 시민 밀착형 활동과 정책 전문성을 강화하는 데 주력했다고 설명했다. 하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 과정에서 내부 갈등이 불거진 것과 관련한 질문에는 "건강한 갈등으로 발전해 나가겠다"며 실적과 성과로 평가해 달라고 당부했다.

의회는 가장 먼저 올해 전국 243개 지방의회 가운데 최다 기록인 7년 연속 우수조례 수상 등 입법역량을 입증했다고 자평했다. 행정안전부 주관 '지방의회 우수사례 경진대회' 최우수상을 비롯해 한국지방자치학회 주관 '제21회 지방의회 우수조례 선정'에서도 최우수상과 특별상을 수상하며 외부 평가에서도 전국 최고 수준의 성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 정부 및 국회와의 협력에도 적극 나섰다. 의장은 국토교통부 장관과 만나 AI 모빌리티 투자 확대, 호남고속도로 확장 사업 국비 지원 등 주요 사업을 건의했으며, 국회예산정책처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해 재정 분석과 공동연구 기반을 마련했다. 지난 10월 출범한 광주·전남 최초 '인공지능 실증도시 특별위원회'를 통해 AI 1·2단계 사업 성과 점검과 규제 개선 활동을 본격화했다.

민생 현장 활동도 확대됐다. 의회는 충장로 상권, 산업단지, 도시철도 2호선 주변, 소방공무원·노조 현장 등 46곳을 방문해 시민 의견을 청취하고 제도 개선을 추진했다. 10회, 113일간 회기를 운영하며 총 345건의 안건을 처리했고, 202건의 조례 중 140건을 의원 발의로 제·개정했다. 조례에는 마을 세무사 운영, 탈플라스틱 전환 촉진, 분산에너지 활성화, AI 활용 교육 지원 등 시민 생활과 미래 변화를 반영한 내용이 포함됐다.

행정사무감사와 시정질문, 5분 자유발언 등 견제 기능도 강화됐다. 시와 교육청 산하기관 90곳을 대상으로 총 1026건의 시정·개선 사항을 요구하며 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였다. 시정질문은 169건, 5분 발언은 39건이 진행됐다.

정책 전문성 강화를 위해 연구·학습 중심 의정활동도 이어졌다. 시민여론조사 4회, 정책연구용역 6건, 정책네트워크 15회, 정책토론회 50회, 의원 대상 특강·연수 6회 등을 실시하며 객관적이고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을 마련하고 의정 역량을 높였다.

신수정 의장은 "2026년에는 쌓아온 성과를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고, 내년 지방선거를 통해 새로 구성될 의회가 이를 계승·발전하도록 역점을 두고 의정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도선인 기자 sunin@kwangju.co.kr

지방정가 라운지

섬지역 이동권 보장 위한 해양 교통 공영제 필요

주종섭 전남도의원

여수지역 섬 주민들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해양교통 공영제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22일 전남도의회에 따르면 주종섭(민주·여수6) 도의원은 20일 전남도립대에서 열린 호남정책학회 동계학술대회에서 "섬지역의 안정적인 이동권 확보를 위해 여수시 해양교통재단을 설립, 운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이날 '도서지역의 안정적인 이동권 확보 연구, 여수시 삼산면을 중심으로'라는 주제의 발제에서 "최근 여객선사와 여수시의 갈등으로 선사측이 운항 중단을 선언하자, 삼산면 주민들이 반발해 운항 중단을 잠정 연기시켰다"면서 "여수 삼산면 지역의 여객선 운항 중단 사태 대응"을 강조했다.

그는 "거문도를 비롯한 삼산면의 섬지역 여수시민들은 잦은 여객선 결항과 운항 중단으로 생긴 불편과 피해를 수십 년째 겪고 있으며, 이는 더 이상 방치되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섬지역 여수시민과 관계인구(관광객 등)의 안정적인 이동권 보장과 실효적인 교통정책을 위해 여수시 해양교통재단 설립을 통한 공영제 운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광주 동물병원 초진 진료비 9814원

CT 촬영 76만5375원…전국 최고

광주·전남 동물병원의 평균 초진 진찰료(5kg 기준)는 9800원대로, 광주 안에서는 남구가 1만463원으로 가장 비쌌다. 광주지역 CT 촬영비는 76만5375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비싸고 최저인 경남(49만5375원)의 1.6배 수준으로 나타났다.

22일 농림축산식품부가 발표한 '전국 동물병원 진료비 현황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국 동물병원의 평균 초진 진찰료(5kg 기준)는 9873원으로 조사됐다. 광주는 9814원, 전남은 9875원으로 전국 평균 수준을 보였다.

광주 5개 구(區) 가운데 남구가 1만463원으로 가장 높고, 북구 1만246원, 동구 9700원, 서구 9597원, 광산구 9261원 등 순이었다.

지역 간 평균 진료비를 놓고 보면 광주 CT 촬영비 76만5375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비쌌다. 전남지역 상담료는 7389원, 광주 입원비(개)는 5만6087원으로 전국 최저를 나타냈다. 전남 상담료는 전년(7926원)보다 6.8% 내렸다. 백신 접종료는 전남 켄넬코프 백신과 코로나바이러스 백신(개) 접종료가 각 1만8951원, 1만8109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쌌다.

종합백신 접종비는 광주 2만5640원·전남 2만3155원으로, 전국 평균(2만6337원)보다 낮았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전남도, 은둔 청소년 복귀 지원

1억 7300만원 투입

전남도가 22일 "성평등가족부의 '2026 고립·은둔 위기청소년 정책 지원' 사업에 선정, 위기 청소년의 사회 복귀와 자립을 위한 1대 1 맞춤형 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

전남도에 따르면 성평등가족부는 고립·은둔 청소년 일상회복과 건강한 성장지원을 위해 '원스톱' 패키지 지원사업을 공모를 통해 전남도를 사업대상자로 선정했다.

사업 선정으로 전남도는 내년 하반기부터 총사업비 1억 7300만원을 투입, 고립됐거나 은둔 중인 학교 밖 청소년의 심리·사회적 관계를 조기에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김민석 기자 mskim@

광주일보 73년 - 유튜브 3천만뷰 돌파

광주문화신협

광주문화신협이
평생 어부바 하겠습니다!

출자금 비과세 한도 상향
개인당 2천만원 까지 완전 비과세

아름다운 금융 다채로운 금융 함께하는 금융

자산규모 1조 5천억원	창립 이후 30년 연속 흑자경영	복지장학재단 운영	당기순이익의 9% 이상 지역사회 환원

광주문화신협
대표번호 1644-7990

·본 점 ·여신사업부 ·양산지점 ·운암지점 ·매곡지점 ·첨단지점 ·동광주지점 ·문흥지점 ·동림지점 ·각화지점